KYOBO 교보증권

발간일자 2026. 01. 02

각자의 길과 남겨진 과제

[채권/글로벌전략] 백윤민 수석연구위원

yoonmin1983@iprovest.com

CONTENTS

3 Summary

4 Key Chart

6 1 월 FOMC, 금리인하 기대 유지하는 가운데, 한 템포 쉬어갈 전망

10 금통위, 당분간 동결 기조 유지

12 투자전략: 편하지는 않지만, Carry On

13 Issue Check: 1 월 BOJ, 금리동결 예상. 당분간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 유지

15 Appendix: Chart Book

Summary

1월 FOMC, 금리인하 기대 유지하는 가운데, 한 템포 쉬어갈 전망

1월 FOMC에서 연방기금 목표금리는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 최근 발표된 성장, 물가 지표 등을 보면, 연준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이어가기 보다는 한 템포 쉬면서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판단. 다만, 연준이 2026년에도 점진적인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가면서, 연내 2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 높아진 성장 기대로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됐지만,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높은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연준의 점진적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금통위, 당분간 동결 기조 유지

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 수준(2.50%)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 당사도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이 크게 약화된 점에는 동의. 특히 국내 부동산 시장, 환율 등 주요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은의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의지도 크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 다만, 높은 성장률 기저효과와 하반기 성장 동력 약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재차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금리인하 사이클이 완전히 종료되지는 않았다고 판단

투자전략: 편하지는 않지만, Carry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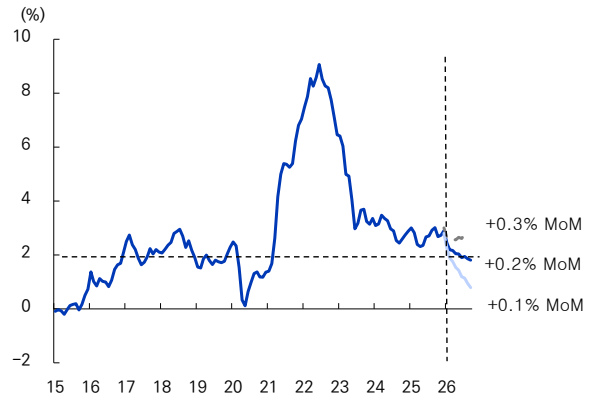
투자전략 관점에서는 편하지는 않지만, 캐리(carry)를 고려한 매수 접근은 유효하다고 판단. 현재 시장금리 레벨은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를 가정해도 다소 높은 영역에 위치. 또한 아직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 최근 한국은행은 '2026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원론적이지만, 기준금리는 향후 물가·성장 흐름 및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금리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Issue Check: 1월 BOJ, 금리동결 예상. 당분간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 유지

1월 BOJ에서 기준금리는 현 수준(0.75%)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 당사는 올해(2026년)에도 BOJ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금리인상 시점은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3분기)에 1회 정도의 인상이 유력하다고 판단. 다만,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특히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재차 부각될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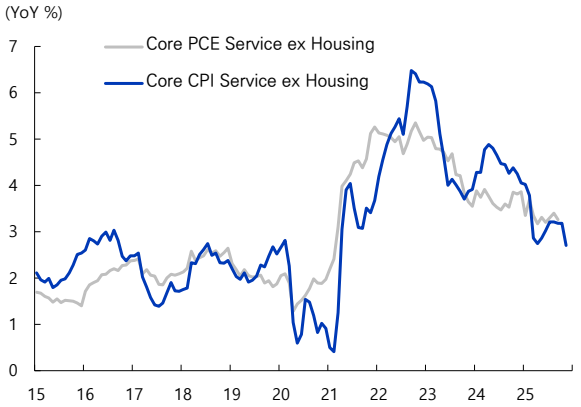
Key Chart

[도표 1] 미국 소비자물가 및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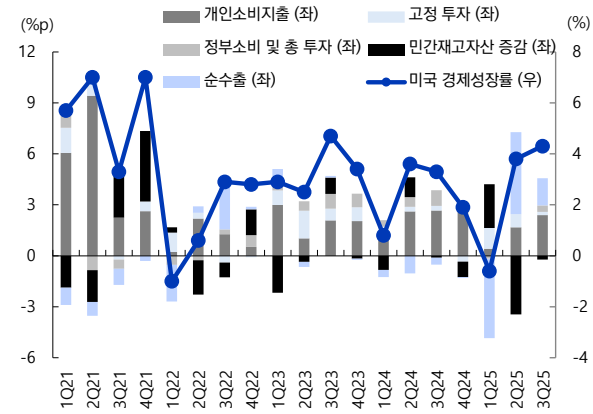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노동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미국 근원 서비스 물가(ex. 주거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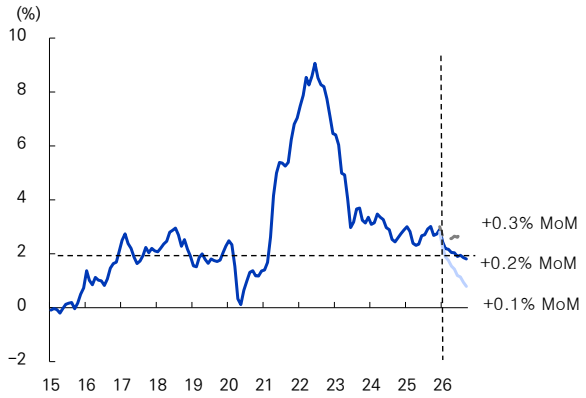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노동부, 미국 상무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미국 성장 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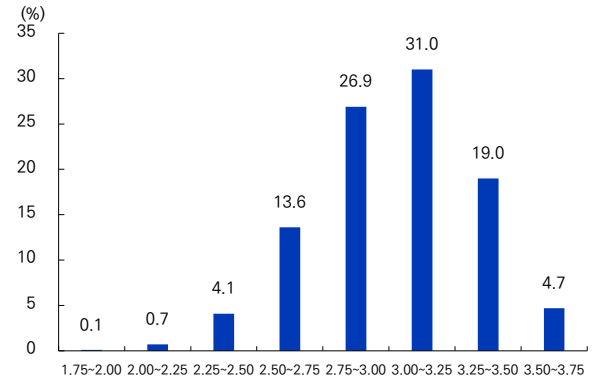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상무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미국 비농업 고용자수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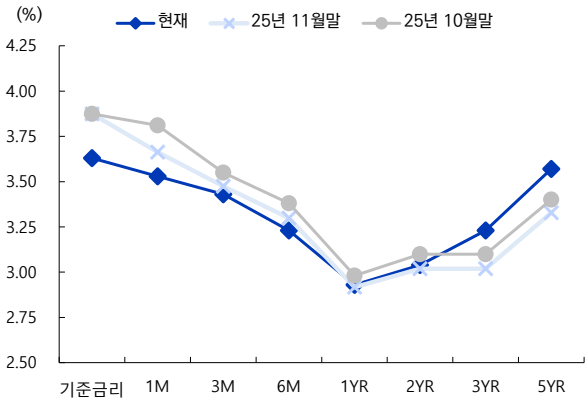
자료: 미국 노동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Fed Watch, 2026 년 12 월 기준 통화정책 확률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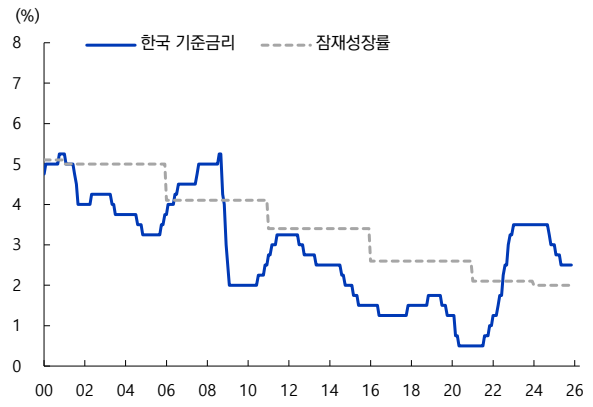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연준, 내재 정책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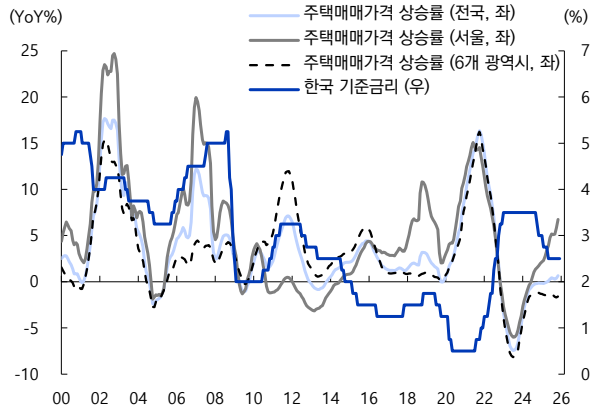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한국 기준금리 및 잠재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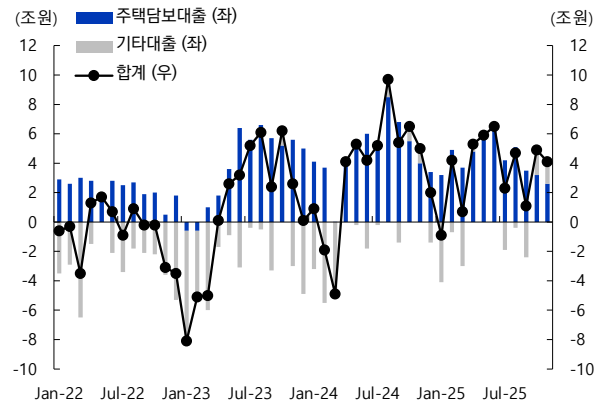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한국 기준금리 및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KB부동산,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9] 국내 가계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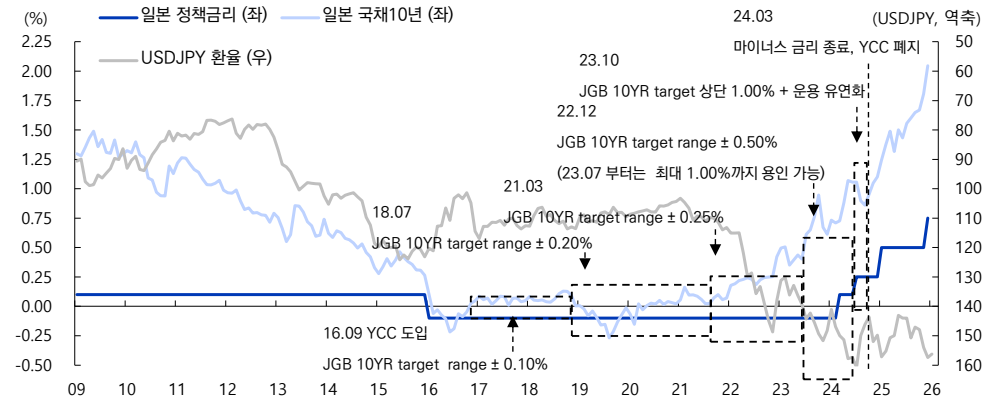


자료: 금감원,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입 동향

자료: 한국은행, 인포맥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BOJ 통화정책과 일본 국채금리, 환율 변화 추이



자료: BOJ,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각자의 길과 남겨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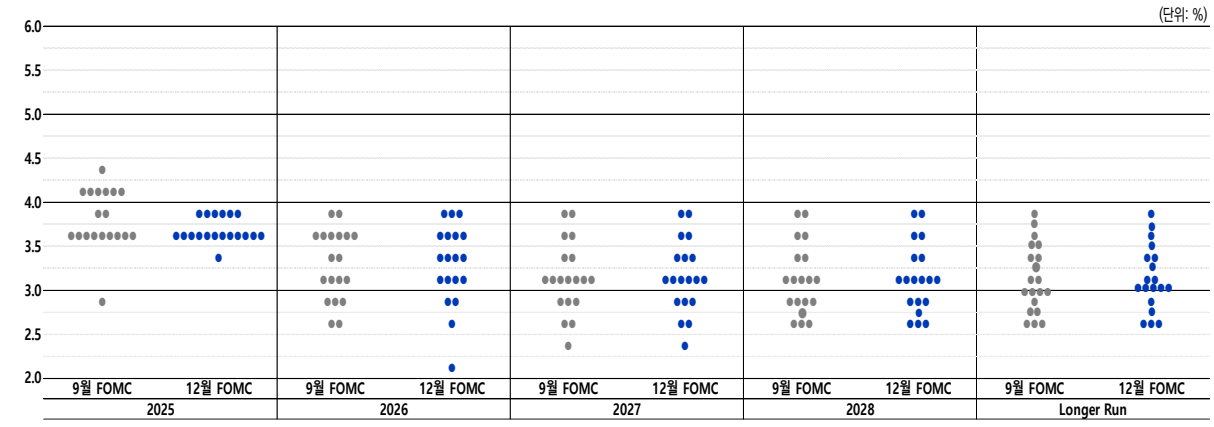
1월 FOMC, 금리인하 기대 유지하는 가운데, 한 템포 쉬어갈 전망

12월 FOMC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다. 스티븐 마이런 연준이사가 10월에 이어 재차 50bp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개진한 가운데,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개진했다. 대차대조표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단기 국채 매입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매입 대상은 1년 이하의 T-bill이지만, 필요시 3년 이하의 국채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을 명시)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 의견이 2명에 그치기는 했지만, 금번 통화정책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통화정책에 대한 이견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12월 FOMC에서도 연준의 기준금리가 3.75%로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의 위원들이 4.00% 수준의 기준금리 전망을 유지하고, 일부 위원들이 2028년까지도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간접적으로 금번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이견을 표출했다.

다만, 이러한 이견이 실질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전술한 통화정책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점도표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2025~2028년 전망치는 대체로 지난 9월 FOMC 수준을 유지했고, 장기금리 전망치(longer run)도 3.0%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파월의장도 "현 시점에서 금리인상이 기본 시나리오인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I don't think a rate hike is anyone's base case at this point)"라고 발언하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도표 12] 2025년 9월, 2025년 12월 금리점도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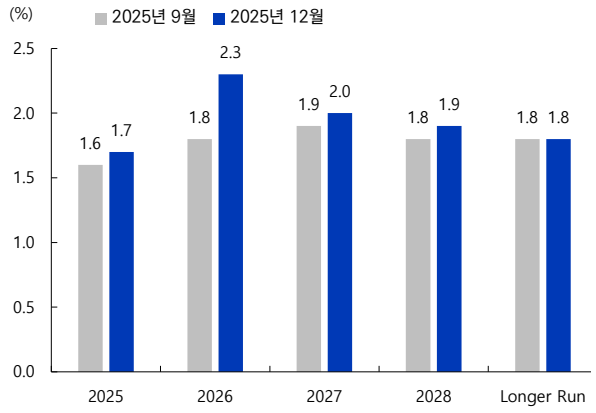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연준은 12월 경제전망 자료(SEP)를 통해 2025~202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특히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1.8%→2.3%)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파월의장은 견조한 소비 회복과 AI와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 투자 증가 등을 성장률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언급했다. 실업률은 2027년 전망치가 소폭 하향 조정된 것으로 제외하면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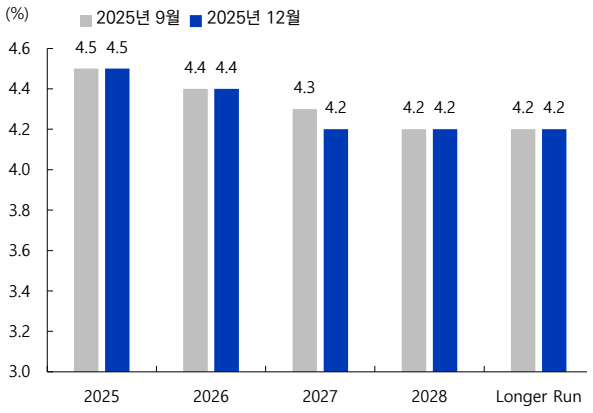
반면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올해와 내년도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 아직 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했지만, 이전대비 물가에 대한 눈높이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파월의장도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는 일회성이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하면서 비관세 요인의 인플레이션은 진전을 보였다고 발언했다.

[도표 13] 2025년 12월 SEP: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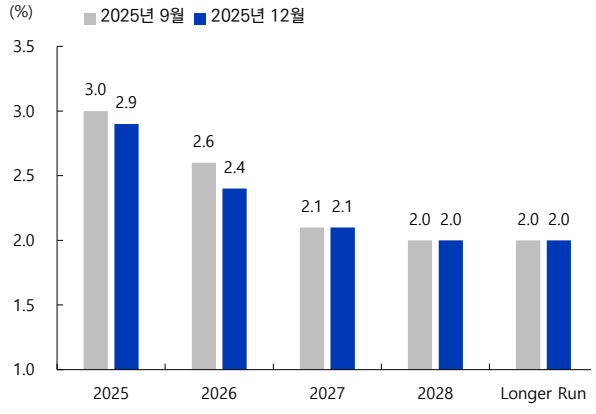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4] 2025년 12월 SEP: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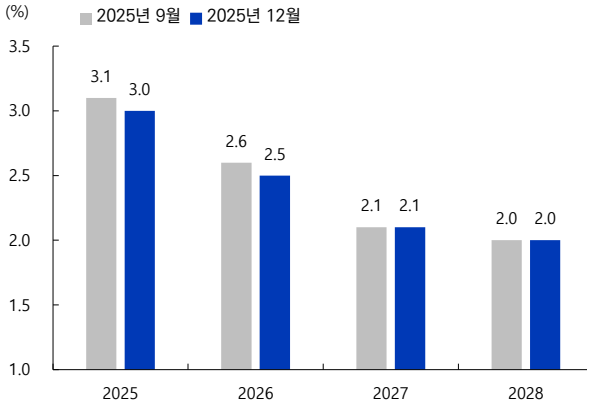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5] 2025년 12월 SEP: PCE 물가



자료: Federal Reserv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6] 2025년 12월 SEP: 근원 PCE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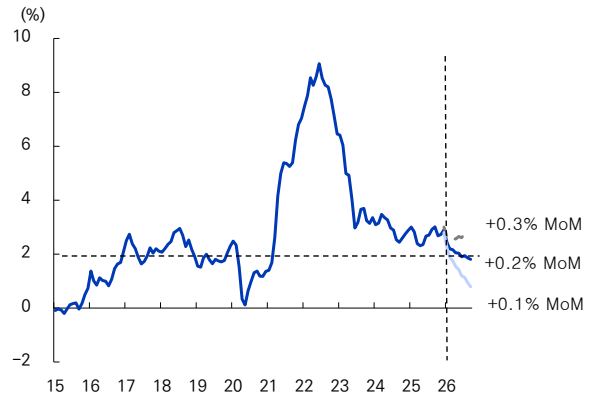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1월 FOMC에서 연방기금 목표금리는 현 수준(3.75%)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FOMC 기자간담회에서의 파월의장은 12월 인하 결정이 "아슬아슬했다 (It's a close call)"고 발언하면서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 (I think we're in a good place to, as I mentioned, to wait and see how the economy evolves)"라고 언급했다. 최근 발표된 성장, 물가 지표 등을 놓고 보면, 연준이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결정을 이어가기 보다는 한 템포 쉬면서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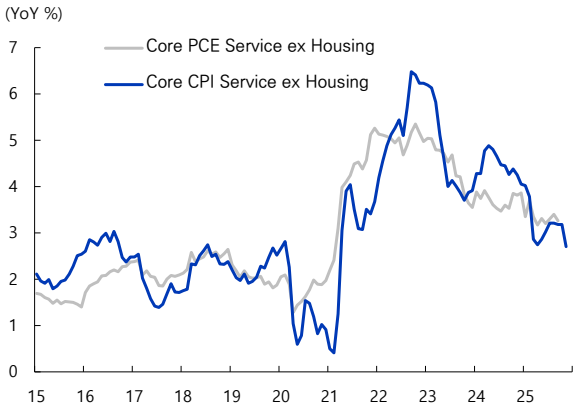
미국 3분기 경제성장률은 예상치(+3.3%)를 크게 상회한 4.3% QoQ SAAR을 기록했다.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재고자산 축소폭이 줄어들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미국 소비자물가 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왜곡 가능성 등으로 지표에 대한 신뢰도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도표 17] 미국 소비자물가 및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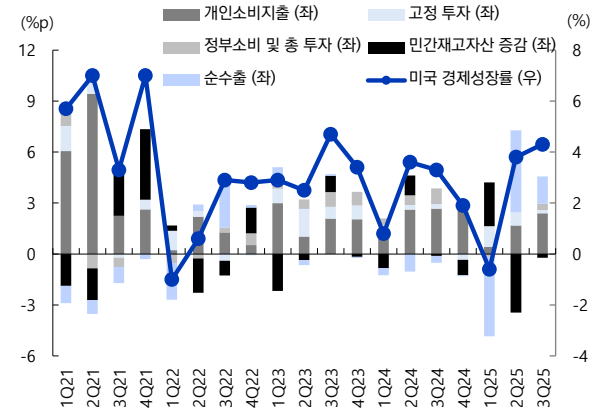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노동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8] 미국 근원 서비스 물가(ex. 주거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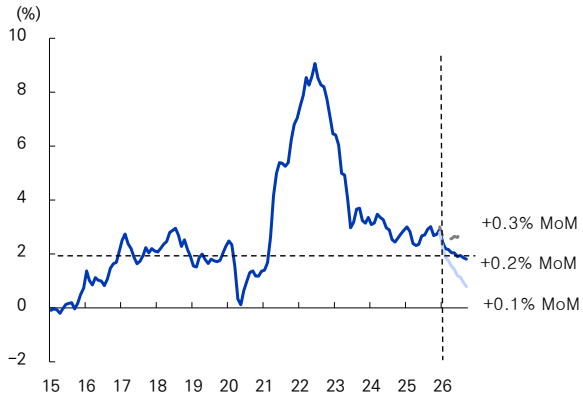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노동부, 미국 상무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9] 미국 성장 기여도 추이



자료: Bloomberg, 미국 상무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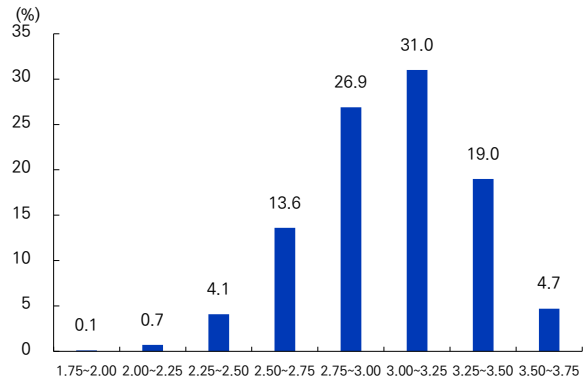
[도표 20] 미국 비농업 고용자수 및 실업률



자료: 미국 노동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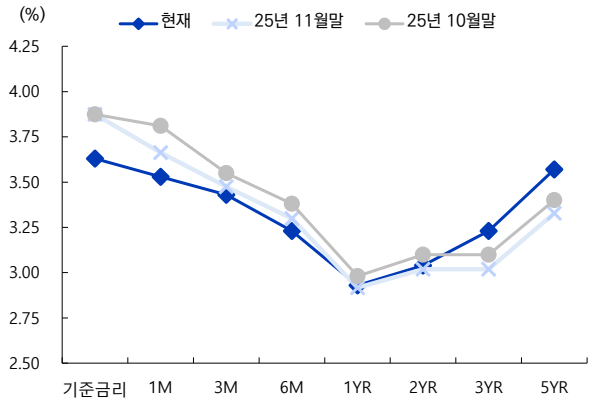
그러나 당사는 연준이 2026년에도 점진적인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가면서, 연내 2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 이전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금번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경기부양이 아닌 과도한 통화 긴축을 완화해 미 경제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정책 정상화 과정이다. 높아진 성장에 대한 기대로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은 확대됐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가운데, 높은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연준의 점진적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내년에 새롭게 투표권을 얻게 되는 지역 연방은행의 총재들의 통화정책 성향을 고려해도, 25년대비 매파적인 스탠스가 크게 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21] Fed Watch, 2026 년 12 월 기준 통화정책 확률 분포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2] 연준, 내재 정책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3] 2026 년 FOMC 투표권 보유 위원 및 통화정책 성향

성명	비둘기		중립		매	비고
Jerome Powell			√			Borad of Govenors
Philip Jefferson			√			Borad of Govenors
Michael Barr			√			Borad of Govenors
Michelle Bowman	√					Borad of Govenors
Christopher Waller	√					Borad of Govenors
Lisa Cook		√				Borad of Govenors
Stephen Miran	√					Borad of Govenors
John Williams		√				2026 Voting Member
Elizabeth Hammack					√	2026 Voting Member
Anna Paulson		√				2026 Voting Member
Lorie Logan				√		2026 Voting Member
Neel Kashkari			√			2026 Voting Member
Austan Goolsbee			√			Alternate Voters
Thomas Barkin				√		Alternate Voters
Raphael Bostic			√			Alternate Voters
Mary Daly		√				Alternate Voters
Susan Collins			√			Non-Voter
Jeffrey Schmid					√	Non-Voter
Alberto Musalem				√		Non-Voter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4] 2025 년 FOMC 투표권 보유 위원 및 통화정책 성향

성명	비둘기		중립		매	비고
Jerome Powell			√			Borad of Govenors
Philip Jefferson			√			Borad of Govenors
Michael Barr			√			Borad of Govenors
Michelle Bowman	√					Borad of Govenors
Christopher Waller	√					Borad of Govenors
Lisa Cook		√				Borad of Govenors
Stephen Miran	√					Borad of Govenors
John Williams		√				2025 Voting Member
Austan Goolsbee			√			2025 Voting Member
Susan Collins			√			2025 Voting Member
Jeffrey Schmid					√	2025 Voting Member
Alberto Musalem				√		2025 Voting Member
Elizabeth Hammack					√	Alternate Voters
Anna Paulson		√				Alternate Voters
Lorie Logan				√		Alternate Voters
Neel Kashkari			√			Alternate Voters
Thomas Barkin				√		Non-Voter
Raphael Bostic			√			Non-Voter
Mary Daly		√				Non-Vo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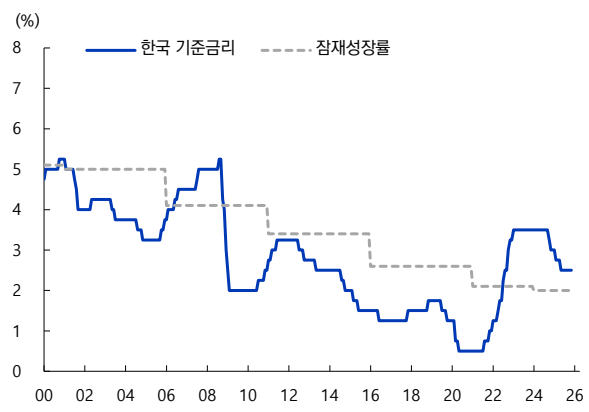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금통위, 당분간 동결 기조 유지

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 수준(2.50%)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펀더멘탈 측면을 차치하더라도, 국내 부동산 시장, 환율 등 주요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은의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의지도 크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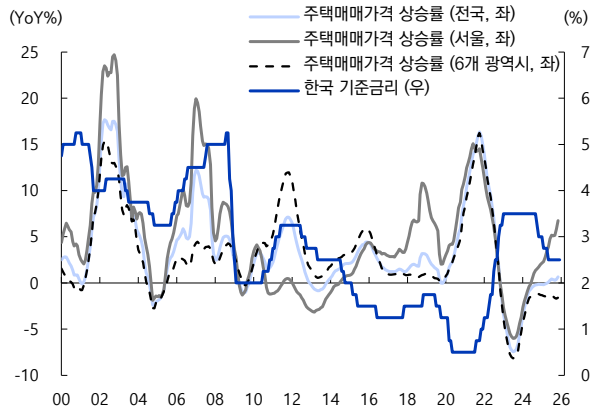
주택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고,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축소되고 있지만, 아직 감소세가 뚜렷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아직 안심을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 외환당국의 강력한 구두개입과 정책 대응 영향으로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났지만, 전반적인 수급 불안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표 25] 한국 기준금리 및 잠재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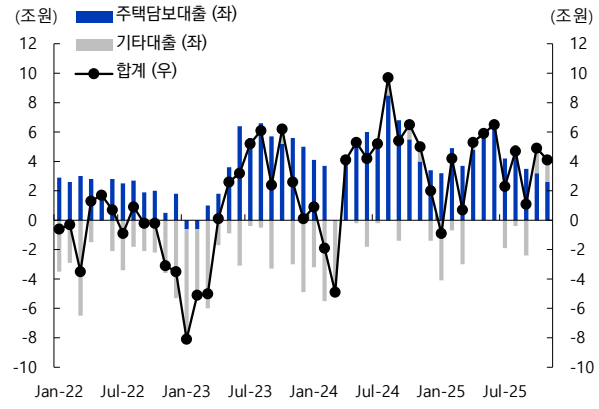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6] 한국 기준금리 및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KB부동산,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7] 국내 가계대출 추이



자료: 금감원,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8]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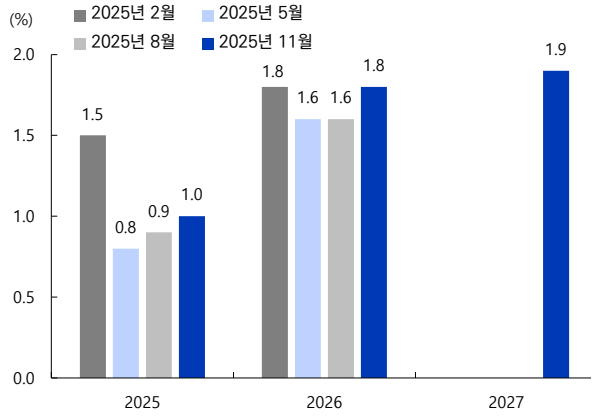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인포맥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지난 1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했다. 먼저 한은은 올해와 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2.0%→2.1%. 1.9%→2.1%로 상향 조정하고, 2027년 전망치를 2.0%로 새롭게 제시했다. 한은은 물가가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지겠지만,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 경로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도 전망치를 각각 0.9%→1.0%, 1.6%→1.8%로 상향 조정하고, 2027년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가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출 증가율 둔화에도 반도체 경기 호조, 한 · 미 관세 협상 타결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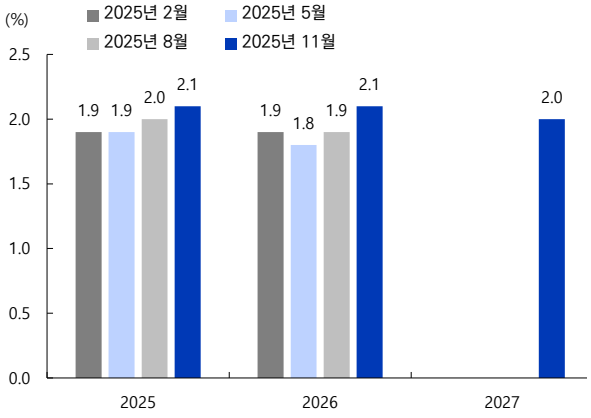
전술했듯이, 당사도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이 크게 약화된 점에는 동의한다. 다만, 아직은 금리인하 사이클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며, 올해 하반기에는 한 차례 정도 추가 인하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금통위가 국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낙관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창용 총재가 언급했듯이, 높은 성장률 기저효과와 하반기 성장 동력 약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재차 부각될 수 있다.

[도표 29] 한국은행, 국내 성장률 전망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0] 한국은행, 물가 상승률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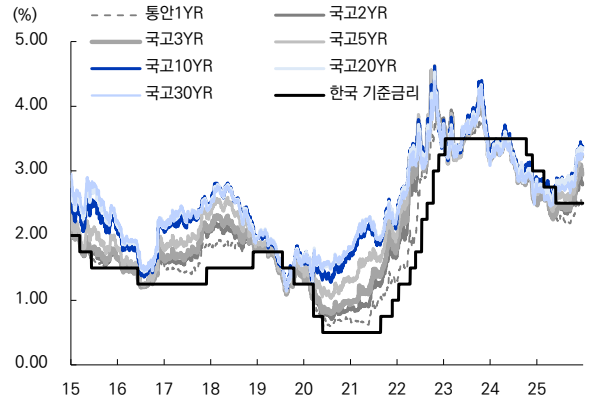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 편하지는 않지만, Carry On

국내 채권시장은 롱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높은 변동성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후 시장금리가 연고점을 경신한 이후 저가 매수세 유입과 정책 당국의 안정화 조치 등이 이어지면서 금리 변동성도 다소 완화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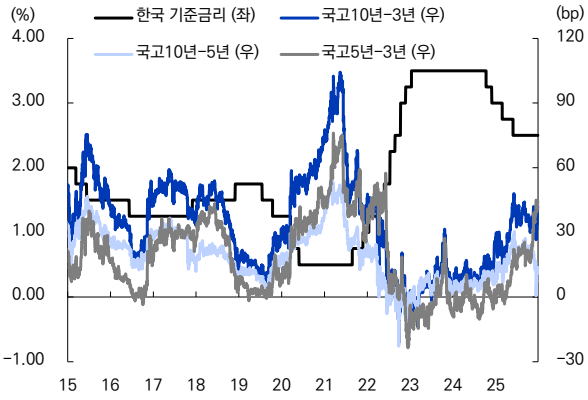
투자전략 관점에서는 편하지는 않지만, 캐리(carry)를 고려한 매수 접근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현재 시장금리 레벨은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를 가정해도 다소 높은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아직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은행은 '2026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원론적이지만, 기준금리는 향후 물가와 성장 흐름,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도표 31]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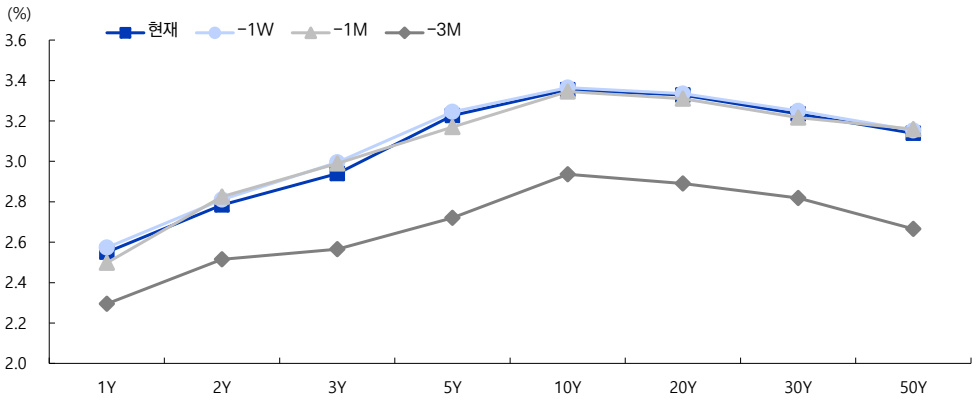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2] 국고채 금리 스프레드 추이



자료: 인포맥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3] 한국 기간별 일드 커브 추이



자료: 인포맥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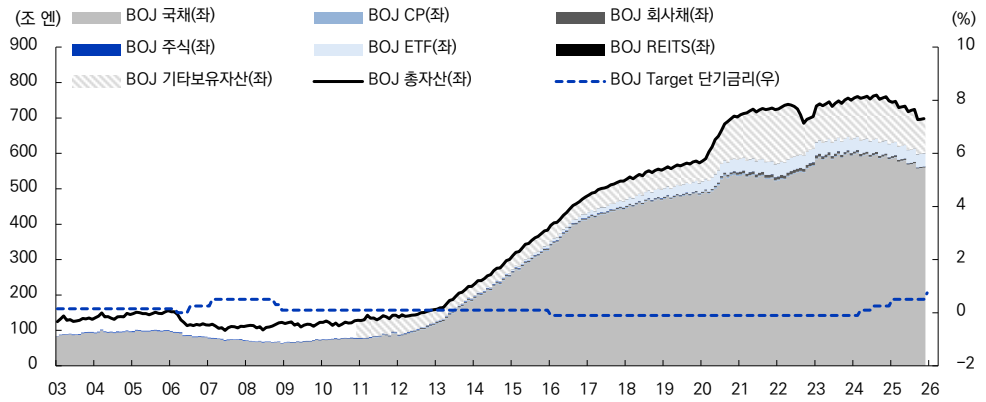
Issue Check: 1월 BOJ, 금리동결 예상. 당분간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 유지

일본은행(BOJ)는 지난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당사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로 25bp 인상했다 (만장일치). 이로써 일본은행의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BOJ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됐지만,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된 가운데, 엔화 약세 흐름이 심화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더 지연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성명서에서 BOJ는 일본 경제가 일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CPI가 2% 중반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입 물가로 인한 상승 압력은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2%) 수준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BOJ는 현재 실질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향후 경제와 물가가 전망 수준을 실현할 경우, 통화정책 완화의 정도를 추가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에다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물가와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도표 34] BOJ 기준금리 및 대차대조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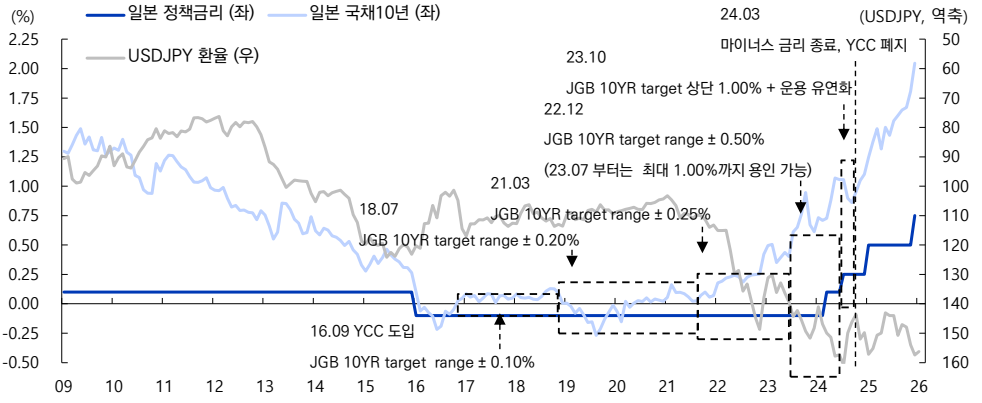


자료: BOJ,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1월 BOJ에서 기준금리는 현 수준(0.75%)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당사는 올해(2026년)에도 BOJ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금리인상 시점은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3분기)에 1회 정도의 인상이 유력하다고 판단한다. 지난 10월 BOJ에서 제시된 경제전망에서 보듯이, 아직 일본 경제의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다카이치 정권의 정책 기조 등을 감안하면, 향후 BOJ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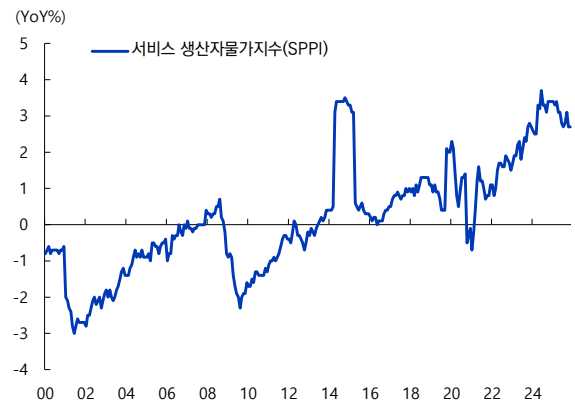
다만,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특히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재차 부각될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월 BOJ 의사록에서도 현재의 금융 여건이 경제 기초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완화적이라는 인식이 나타났으며, 일부 위원은 향후 몇 달 간격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도표 35] BOJ 통화정책과 일본 국채금리, 환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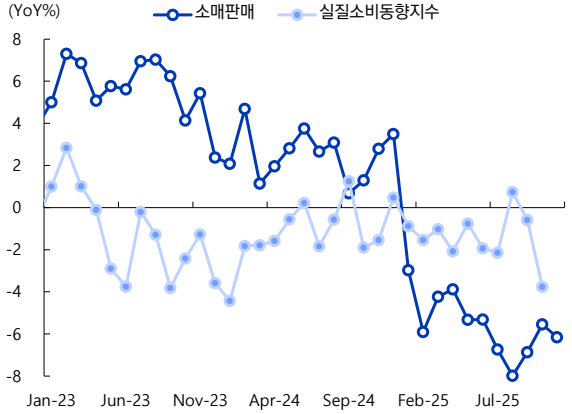
자료: BOJ,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6] 일본 서비스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자료: CEIC,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7] 일본 소매판매 증가율과 실질소비동향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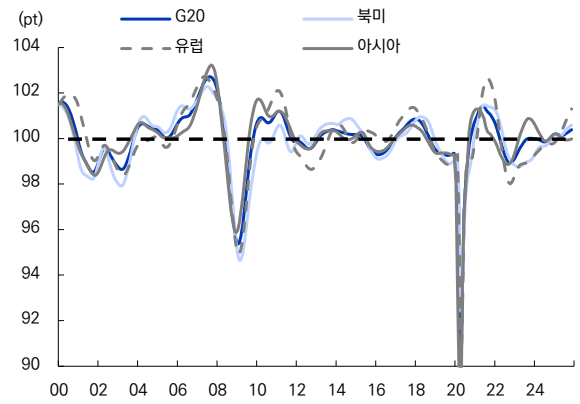


자료: CEIC,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Chart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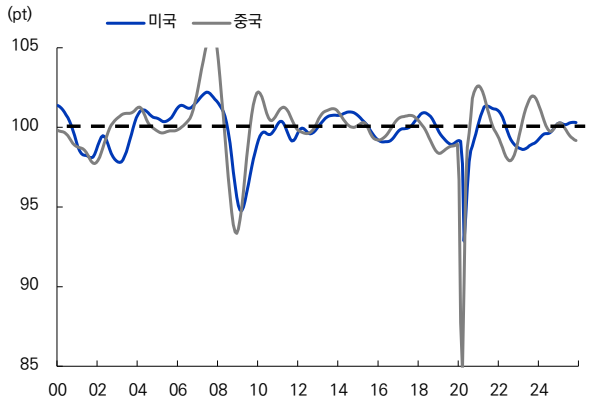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도표 38] 지역별 OECD 경기선행지수



자료: OECD,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9] 미국, 중국 OECD 경기선행지수



자료: OECD,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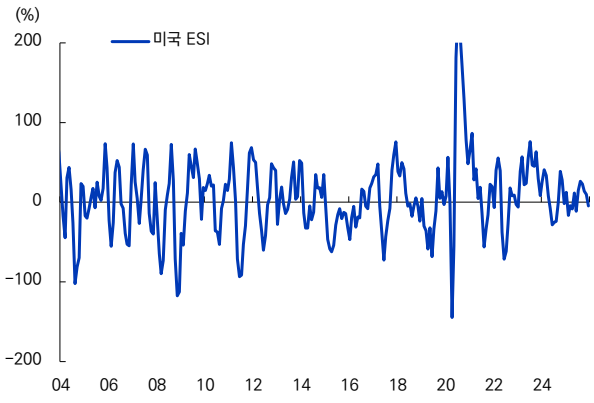
[도표 40]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자료: ISM,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1] 유로존 제조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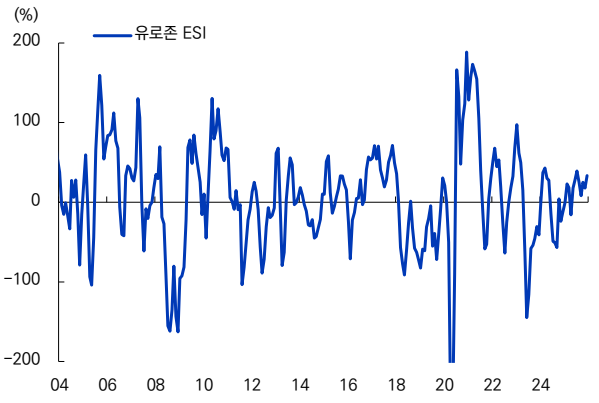
자료: Markit,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2] 미국 ESI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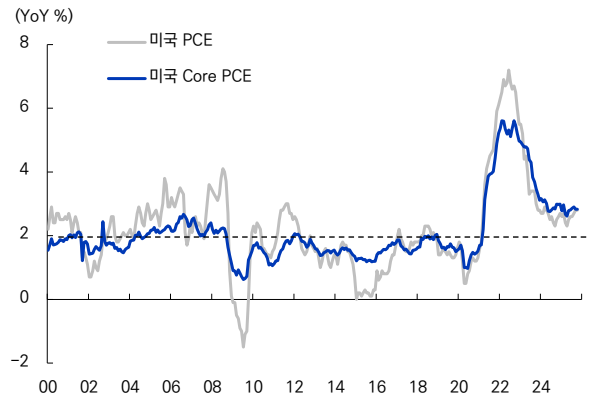
자료: Citi,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3] 유럽 ESI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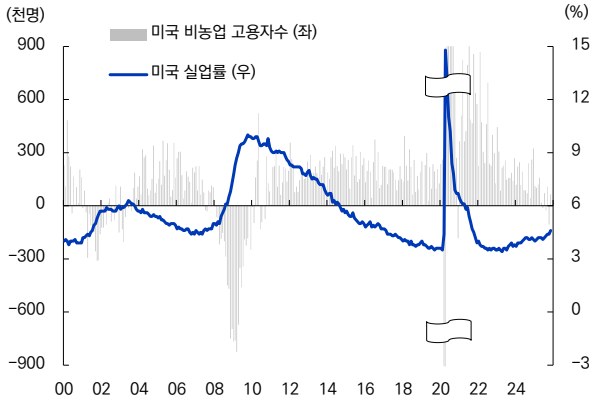
자료: Citi,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4] 미국 PCE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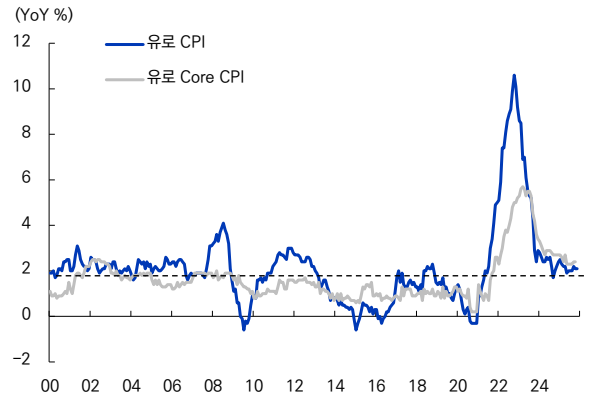
자료: BE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5] 미국 비농업 고용자수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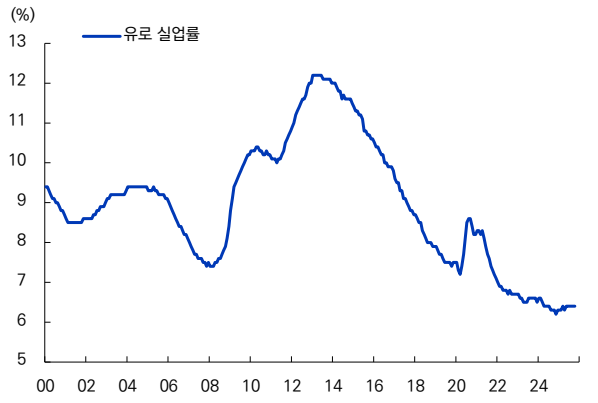
자료: 미국 노동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6]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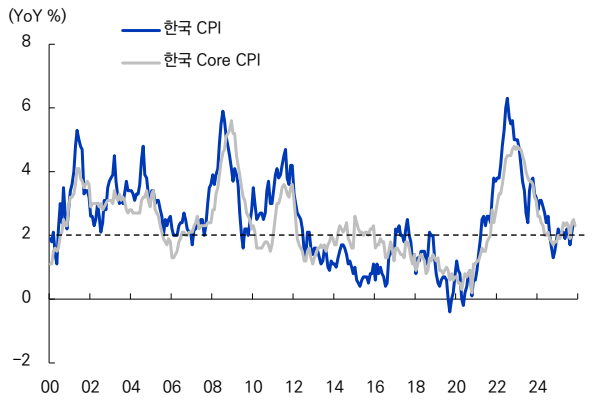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7] 유로존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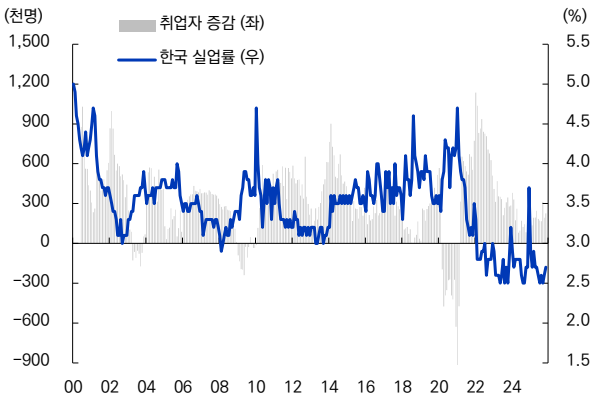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8]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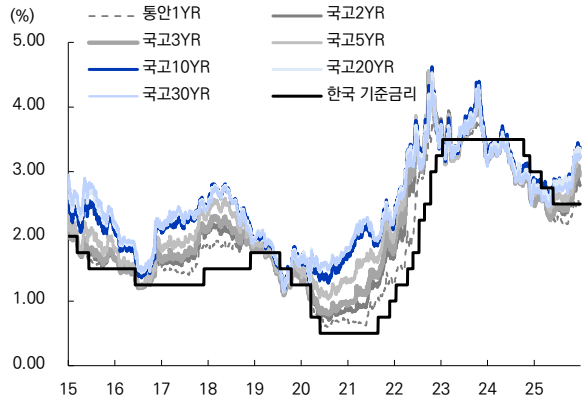
[도표 49] 한국 실업률 및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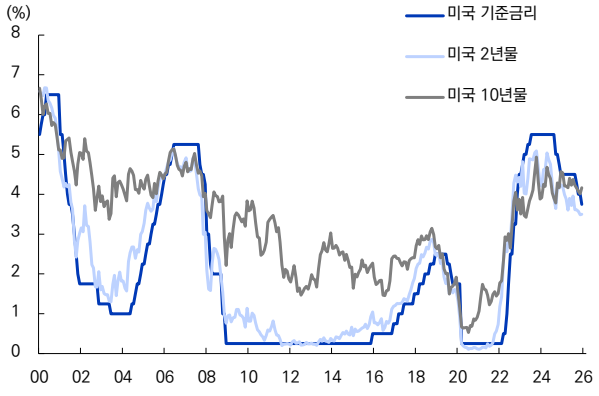
국내외 채권금리

[도표 50] 한국 기준금리 및 국고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1] 미국 기준금리 및 국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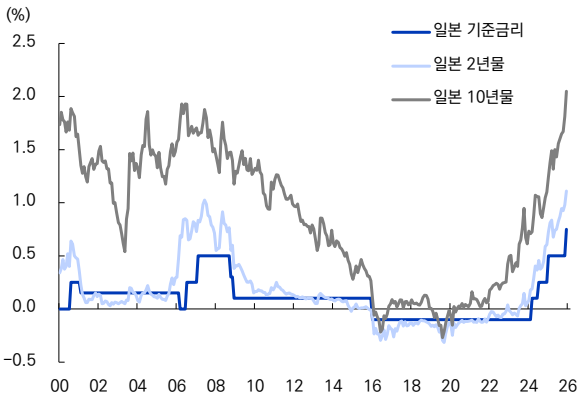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2] ECB 기준금리 및 독일, 프랑스 국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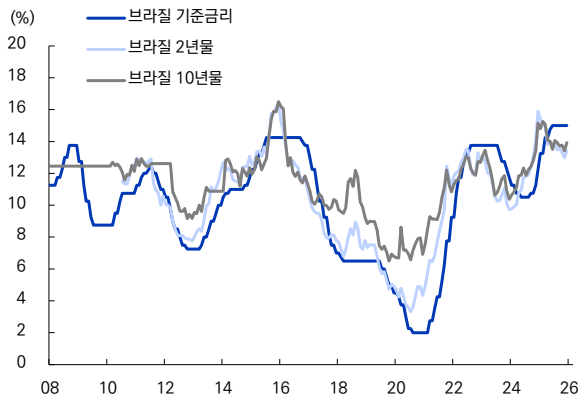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3] 일본 기준금리 및 국채 수익률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4] 브라질 기준금리 및 국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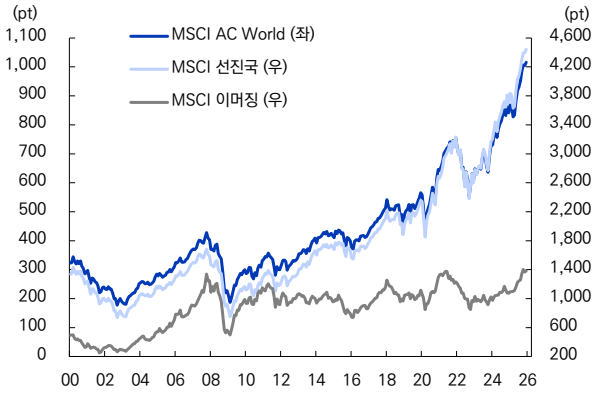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5] 멕시코 기준금리 및 국채 수익률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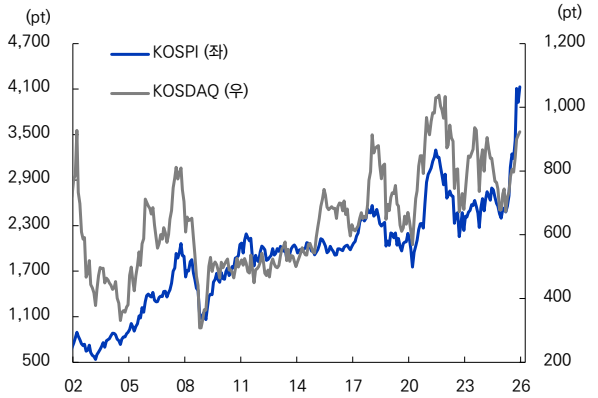
국내외 주가지수

[도표 56] MSCI AC World, 선진국, 이머징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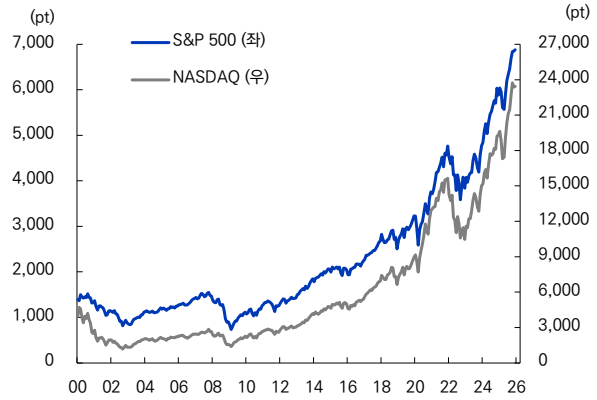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7] KOSPI, KOSDAQ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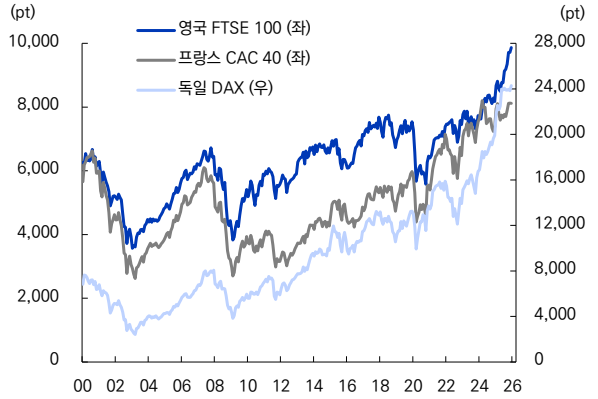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8] 미국 S&P 500, NASDAQ 지수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9] 영국 FTSE 100, 독일 DAX, 프랑스 CAC 40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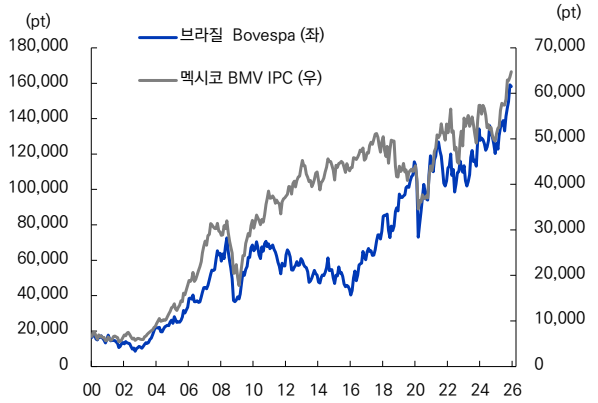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0] 일본 NIKKEI225, 중국 상해종합지수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1] 브라질 BOVESPA, 멕시코 BMV IPC 지수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상품 및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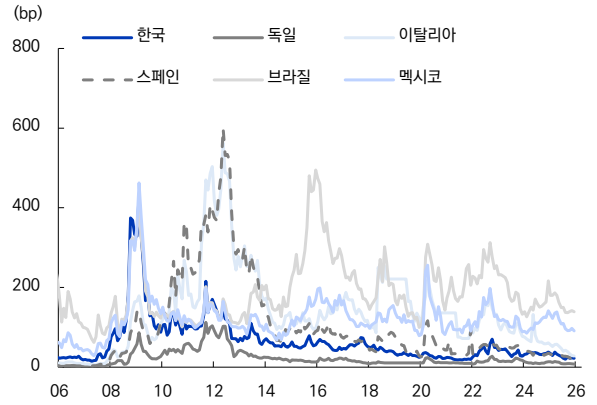
[도표 62] 달러인덱스 및 유로/달러 환율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3]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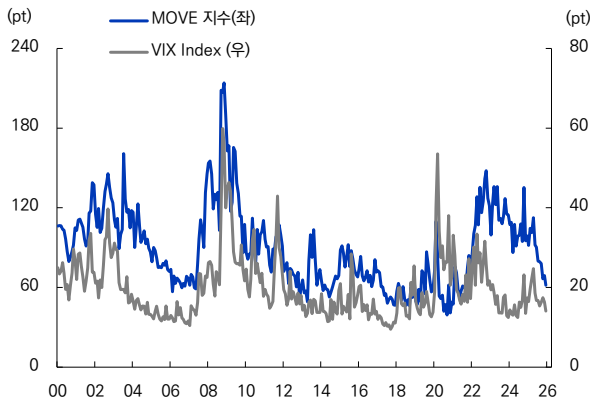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4] 글로벌 CDS 프리미엄(5YR)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5] MOVE 및 VIX 지수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6] CRB 지수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7] 평균유가 및 금 가격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주: 평균유가는 WTI, Brent, Dubai 유가 평균

1 월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	2
			韓 12 월 무역수지 中 12 월 PMI 제조업지수	**만기 7 조 971 억** **통안계정 만기 2000 억** **통안만기 5 조 3200 억**
5	6	7	8	9
만기 2 조 9028 억	**만기 1 조 4010 억** **한은 RP 환매도 16 조**	**만기 3190 억** **지준일** 中 12 월 M2 EU 12 월 소비자물가	**통안계정 만기 2000 억** **만기 8526 억** 韓 11 월 경상수지 美 11 월 내구재수주 美 3 분기 미국 비농업노동생산성 美 10 월 수출 및 수입액 EU 11 월 실업률	**만기 4 조 5340 억** **국채만기 8000 억** **통안만기 9800 억** 美 10 월 도매재고 美 12 월 실업률 美 10 월 건축허가건수 美 10 월 신규주택착공건수 日 12 월 무역수지 EU 11 월 생산자물가 EU 11 월 소매판매
12	13	14	15	16
만기 4 조 3303 억	**만기 2 조 6284 억** **통안만기 9000 억** 美 12 월 CP 日 11 월 경상수지	**만기 7901 억** 韓 11 월 광의통화 美 10 월 신규주택판매 美 12 월 재정수지 美 3 분기 경상수지 美 11 월 생산자물가 美 11 월 소매판매 美 11 월 미국 소매매출 OECD 12 월 경기선행지수(G20)	**만기 3 조 8915 억** 韓 금통위 美 12 월 기존주택판매 美 10 월 기업재고 美 11 월 수입 및 수출 물가 日 12 월 생산자물가 EU 11 월 산업생산	**만기 1 조 9600 억**
19	20	21	22	23
만기 4 조 5631 억	**만기 2 조 4607 억** **통안만기 9000 억** 韓 12 월 한국 생산자물가 中 PBOC EU 11 월 경상수지	**만기 1 조 8591 억**	**만기 3 조 6977 억** 韓 4 분기 GDP 증가율 美 12 월 건축허가건수 美 12 월 신규주택착공건수	**만기 9442 억** 韓 1 월 소비자동향지수 日 12 월 소비자물가 日 BOJ
26	27	28	29	30
만기 1 조 4404 억	韓 1 월 BSI & ESI	美 FOMC 美 12 월 신규주택판매 캐나다 BOC 통화정책회의 브라질 BCB 통화정책회의	美 11 월 도매재고 美 11 월 개인소비지출 美 11 월 개인소득 美 4 분기 실질 GDP(속보)	美 12 월 생산자물가 日 12 월 산업생산

자료: Bloomberg, 본드웹, 연합인포맥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주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현지시간 기준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논문 등에 학술적인 목적으로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먼저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